시련·좌절 '파란만장' 56년 … '더반 신화' 쓰다

■ 한국 대표팀 월드컵 도전사

1954년 첫 출전 헝가리에 0대9 완패

멕시코월드컵 첫 골·2002년 4강신화

주심의 휘슬이 울리는 순간 태극전사들과 새벽잠을 참아가며 TV 앞을 지키고 있던 국민들은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원정 16강'의 감격을 함께 했다.

헝가리에 0-9의 호된 패배를 당했던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도전을 시작으로 56년 만에 원정 16강의 꿈이 현실이 됐다.

영욕의 시간이었다. 한국대표팀은 안방에서 맞이했던 2002년 대회(4강 진출)를 제외한 역대 원정에서 1승5무11패를 기록했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1승1무1패의 기록을 더한 대표팀은 더 큰 목표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냉정한 데뷔전 스위스월드컵(1954년·2패)= 1948년 런던 올림픽 본선에 한국 이름을 달고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발을 내디딘 대표팀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본선에 최초로 진출했다.

세계 최강 헝가리와 맞선 한국대표팀은 상대의 골 세례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헝가리 축구의 전설 푸스카스의 대포알 슈팅을 막느라 골키퍼 홍덕영은 멍투성이가 됐다. 결과는 0-9패.

사흘 뒤 만난 두 번째 상태 터키에게도 0-7의 패배를 기록했다. 헝가리와 서독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한국은 당시 규정에 따라 서독과의 3차전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승리보다 값진 첫 골 멕시코월드컵(1986년·1무2패)= 32년 만에 찾은 월드컵 무대는 멕시코였다. 2010년 사령탑으로 다시 만난 허정무 한국대표팀 감독과 아르헨티나의 마나도나 감독은 양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1986년 그라운드에서 맞섰다.

온몸으로 마라도나를 막았던 허정무 감독에게 '태권 축구'라는 수식어가 생겼다. 사력을 다한 방어에도 아르헨티나에게 3골을 내줬지만 승리보다도 감격스러운 골 맛을 봤다. 김주성의 패스를 받은 박창선이 오른발로 날린 골이 골문을 가르며 월드컵 첫 골이 됐다.

불가리아와 2차전에서 만나 1-1로 비긴 한국은 이탈리아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선전을 펼쳤지만 2-3으로 패배를 당했다.

◇승점없이 끝난 이탈리아월드컵(1990년·3패)=이회택 감독의 지휘 아래 이탈리아 원정에 나선 한국 대표팀은 벨기에와의 첫 경기에서 0-2 패배를 기록했다.

유럽의 강호 스페인과의 두 번째 대결에서도 1-3으로 무릎을 꿇었다. 우루과이와의 최후의 대결,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반 45분 다니엘 폰세카에게 골을 내주며 승점 하나 챙기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이탈리아 월드컵의 유일한 골이었던 황보관의 중거리포가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스페인 골문을 가른 시속 114㎞ 중거리포는 대회 '베스트 5골'에 선정됐다.

◇아쉬움 가득한 미국월드컵(1994년·2무1패)= 스페인·독일·볼리비아와 C조에서 격돌한 한국은 '다크호스'로 꼽혔다. 스페인과의 첫 경기부터 한국의 움직임은 매서웠다. 0-2로 수세에 몰렸던 한국은 후반 40분 홍명보의 중거리포에 이어 서정원의 추가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며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2차전에서 볼리비아와 0-0으로 비긴 한국은 독일과의 마지막 승부를 펼쳤다. 전반 독일의 공세에 0-3으로 끌려 가던 한국은 후반 황선홍과 홍명보의 골로 2-3까지 추격했지만 경기는 아쉬운 패배로 끝이 났다.

◇악몽의 프랑스월드컵(1998년·1무2패)=시작은 좋았다.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북중미의 강팀 멕시코와의 첫 대결에서 본선 무대 사상 처음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왼발의 달인' 하석주의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며 첫 승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이내 그 꿈은 사라졌다. 첫 골의 주인공 하석주가 전반 30분 백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린 한국은 1-3으로 고개를 숙였다.

히딩크 감독이 지휘한 네덜란드에게는 0-5의 대패를 당하며 차범근 감독이 대회 도중 경질되기도 했다. 벨기에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임생의 부상투혼을 남긴 한국은 1-1 무승부로 프랑스 월드컵을 마감했다.

◇꿈이 이루어진 한일월드컵(2002년·4강)= 대한민국이 온통 붉은 물결로 물들었던 2002년이었다.

히딩크 감독을 사령탑으로 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폴란드를 2-0으로 꺾고 감격스러운 월드컵 첫 승을 장식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과 0-0으로 비긴 한국은 박지성의 결승골로 강호 포르투갈을 1-0으로 제압하고 16강의 꿈을 이루었다.

16강에서 만난 상대는 '빗장수비'의 이탈리아. 0-1로 뒤지던 한국은 설기현의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안정환의 연장전 골든골로 이탈리아를 침몰시킨 한국은 스페인과의 8강 승부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4강 무대에 올랐다.

독일과의 준결승에서 0-1로 져 결승행이 좌절된 태극전사들은 터기와 3-4위전에서도 2-3으로 패배를 기록했지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2002년을 선물했다.

◇원정 무대 첫 승리 독일월드컵(2006년·1승1무1패)=딕 아드보카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회 연속 16강 진출을 목표로 독일 대장정에 나섰다.

아데바르요가 버티고 있던 토고를 상대로 이천수·안정환의 연속골을 앞세워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원정 무대 52년만의 첫 승리였다.

강호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도 박지성의 골로 1-1,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2회 연속 16강 꿈이 무르익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스위스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호라시오 엘리손도 주심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수세 몰린 한국은 0-2로 패배의 아쉬움을 삼켰다. 1승1무1패를 거두었지만 3위에 머물며 16강행이 좌절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호~ 동점골이다" 23일 남아공월드컵 나이지리아와 3차전이 열린 더반의 모저스 마비다 스타디움에서 이정수(왼쪽)가 동점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유럽언론 "한국, 빠르고 생동감 넘쳐"

유럽 언론은 한국이 23일(한국시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에 오른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한국 대표팀이 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축구전문 사이트 키커는 이날 경기가 생동감이 넘치고 재미있었으며, 특히 막판에 극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한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활발한 팀이 되었고 더 나은 짜임새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스포츠방송 스카이스포츠는 박주영(25·모나코)이 경기 내내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한국의 16강행을 결정짓는 골을 넣었다면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했고, 한국이 16강에서 우루과이를 괴롭힐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신문 데일리 메일은 인터넷판에서 박주영이 후반 4분에 터뜨린 골 장면 사진을 싣고 "나이지리아의 골키퍼 에니에아마도 박주영의 환상적인 프리킥을 막을 수 없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유로스포츠는 한국이 경기 초반 찬스를 잡으면서 볼거리 많은 빠른 축구를 선보인 반면 나이지리아는 전반 38분 이정수의 골 상황 등 여러 장면에서 스스로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일간 신문 르 피가로는 한국이 2002년 월드컵에 이어 16강에 올랐고 나이지리아는 월드컵에서 8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아시아 자존심 살렸다"

중국 언론들 찬사

중국 매체들이 23일 한국이 2010 남아공월드컵 B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관영 CCTV는 매시간 한국의 16강 진출소식을 반복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한국이 아프리카 독수리(나이지리아 팀의 별칭)를 꺾었다"고 감탄을 표시했다.

중국 포털 사이트에도 '아시아 자존심을 살린 아시아 최강', '아프리카를 제압한 한국' 등 찬사가 쏟아졌다.

중국 스포츠 전문 사이트 화티왕(華體網)은 "한국, 월드컵 축구 16강에 두번째 진출? 아시아 최강으로 부끄럽지 않다"는 제목으로 한국 축구에 대한 부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